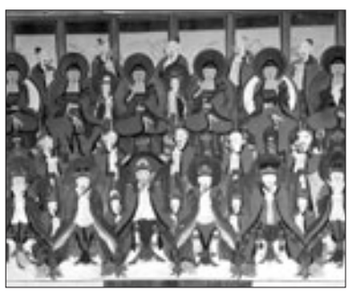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소장학자 지원사업 공모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불교학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제14회 소장학자 연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은 박사학위 논문 지원과 불교 관련 번역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논문 지원 부문 인원은 2명이며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번역 지원은 인도 · 동아시아 부문 각 1명으로,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을 번역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1천만원이다.

공모 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지원자는 소정 양식의 이력서와 학위 논문 및 번역계획서 · 번역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9월 중에 개별통지하며 불교계 언론을 통해 공고된다. 또한, 선정될 경우 본 법인에서 출판지원비를 보조해 도서출판 CIR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신성민 기자



고령 관음사 칠성도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령 관음사 칠성도〈사진〉' 등 총 5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경기도 청사 구관'을 포함한 4건을 등록 예고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684호가 된 '고령 관음사 칠성도'는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전기(典琪) 등의 제작자, 그리고 증명(證明) · 송주(誦呪) · 지전(知殿) · 시주(施主) 등 제작체계와 후원자를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 자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인물의 얼굴과 옷 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하여 입체적 생동감이 느껴지며,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등장시킨 파격적인 시도와 병풍을 배경으로 마치 단체 사진 찍듯 존상들을 배치한 구도와 형식은 개화기 전후 근대기 작가의 새로운 창작 의지가 돋보인다.

이밖에도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천로역정(합질)' '조선요리제법' 등이 등록문화재가 됐다. 신성민 기자

기신론 신회본 · 종합DB 등 원효학 연구 토대 만든다

2년차 맞은 울산대 원효 토대연구사업

해석학적 번역 방식 첫 도입
메주 1회 讀會로 검토 · 연구
신회본 · 착간 교정 · DB 구축
"새 연구 · 이해의 길 열릴 것"

원효 스님의 저서와 문헌을 '해석학적 번역'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번역하는 연구 사업인 울산대 원효 토대연구사업이 2년차를 맞았다.

기존 현토형 번역이 아닌 연구자들의 해석적 이해를 통해 번역된 연구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울산대 원효 토대연구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까지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년차를 맞은 원효 토대연구사업은 △〈대승기신론별기〉와 〈대승기신론소〉의 번역과 교감 △〈대승기신론소 · 별기〉의 신회본(新會本) 편찬 △신수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기신론소〉 착간 내용 확인 교정 △〈이장의〉 번역 · 교감 △종합 해제 및 DB 구축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신회본의 편찬은 눈길을 끈다. 〈별기〉와 〈소〉의 연구가 조선시대에 편찬된 '회본'에 기인하지만, 기존 회본에는 원효의 관점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아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박 교수는 "기존 회본에 의지 않고 〈별기〉와 〈소〉를 번역하고, 양자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본 '신회본'을 편찬했다"며 "이번 신회본은 〈별기〉와 〈소〉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고 어떤 내용들이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원효 연구의 새로운 통합 저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효 연구의 기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종합해제'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팀은 원효의 주석 및 저술을 비롯해 연구사 목록 · 핵심 개념 · 인용 경론까지 모두 망라해 DB화했다. 이 같은 원효 종합 해제는 연구가 마무리 되는 즉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저서 번역을 중심으로 한 원효 토대연구사업의 특징은 '해석학적 번역'이라는 새로운 번역 방식에 있다. 더 정교한 번역을 위해 매주 1회 독회(讀會)를 진행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원효 토대연구사업은 번역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서 출발했다"면서 "번역 방식을 달리해야 의미있고 축적 · 계승 가능한 번역이 이뤄진다. 이번 연구는 현존 원효 저술을 모두 '해석학적 번역양식'에 따라 번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번역자의 이해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은 전문 연구자나 일반 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효 토대연구사업은 오는 2020년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임 연구원 4명, 공동연구원 5명이 참여 중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초 발견 '명칭가곡', 불교 가곡 영향"

정각 스님, 동불연 세미나서
보광사 지장보살상 전적 분석
'제불가곡' 국내서 최초 발견
조선 불교 가곡 정립에 기여

속초 보광사 지장보살좌상 조사 중 확인된 복장 · 전적 중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조선 불교 가곡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은 5월 27일 동북아미술연구소(소장 석문)과 보광사가 주관 ·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각 스님은 발표 논문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 전적 연구'에서 복장발원문 · 중수원문 · 대불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 등의 서지 · 전적류를 연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이하 명칭가곡)'이다. 명칭가곡은 명나라 영락제가 편찬한 것으로 서원과 예참가곡 · 공양 · 참회 · 회향 등이 담긴 일종의 '예참가곡'이다. 조선에는 태종 17년(1417)에 전래되며, 승과에는 명칭가곡을 외우는 것이 과제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명칭가곡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 나온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명나라 영락제가 편찬해 조선 태종대에 전래됐다. 이 가곡은 조선조 불교가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각 스님은 "'명칭가곡'에 실린 가곡은 조선조 불교가곡(佛敎歌曲)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세종이 친제(親製)한 불곡(佛曲)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며 "1449년 내불당 낙성식을 기해 연주된 세종의 친제한 '사리영응기'에 언급된 신작 7곡은 '명칭가곡'에 실린 가사를 토대로 작곡됐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명칭가곡'의 변상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정각 스님은 "'명칭가곡'의 변상도는 조선 초기 경전 변상도 도상 정립에 영향을 미쳤다"며 "간경도감 간행의 〈묘법연화경〉 변상도의 경우 '명칭가곡'에 실린 변상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경 · 배순화 서울여대 의류학과 교수는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 직물에 관한 고찰'에서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 직물은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출토유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큰 의의가 있으며, 17세기 문직물의 편년 설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요정 충북대학교 초빙부교수는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재질 및 연륜연대분석'이란 연구발표를 통해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재질을 분석한 결과 몸체, 수인, 밑판, 복장구 모두 피나무임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유가행파 국제 연구 성과 나왔다

금강대 · 日 다이쇼대, '성문지와 불교사본' 발간

유가행파 문헌과 사상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성과가 담긴 연구서가 발간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하버드동양학총서(Harvard Oriental Series) 제75권 〈요가수행자의 불교적 바탕〉을 잇는 후속 유가행파 연구의 성과물인 〈성문지와 불교사본〉을 일본 다이쇼(大正)대 종합불교연구소와 공동으로 영문 출판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 책은 크게 제1장 〈성문지〉를 비롯한 유가행파 문헌과 그 사상에 관련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 논문 6편과 제2장 〈성문지〉 사본을 비롯한 불교사본 전체로 그 범주를 넓힌 논문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학자들도 면모도 눈길을 끈다. 금강대에서는 박창환 · 이영진 · 차상엽 교수가, 다이쇼대에서는 아베 타카코 · 이시다 카즈히로 · 나카시마 준도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로버트 크리처 교토노트르담대 교수, 야마베 노부요시 와세다대 교수, 다니엘 스튜어트 사우스카롤리나대 교수, 사캬 수단 도호쿠대 교수 등도 연구진에 이름을 올렸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와 일본 다이쇼대 종합불교연구소가 함께 펴낸 〈성문지와 불교사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 관계자는 "영문 출판본은 연구센터의 아젠다와 정확히 일치하는 연구결과물"이라며 "국내 불교학계에는 소개되지 않은 범어사본과 티벳어 사본 등으로 그 연구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출간으로 금강대 불문연은 세계 유가행파 연구의 중심지이자 선도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면서 "영문 저술을 통한 세계학회와의 소통 노력과 다이쇼대 종합불교연구소 등 세계적인 불교학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 추진도 주목할만 한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韓日 정토사상, 어떻게 같고 다른가

日불교사독서회, 학술세미나 및 〈나무아미타불〉 고불식

한국과 일본의 정토사상을 비교 ·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본불교사독서회는 5월 26일 목우선원서 '한일 정토사상의 비교'를 주제로 제12회 학술 세미나와 야나기 무네요시의 저서 〈나무아미타불〉 한국어판 발간 고불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정토종의 종지는 불교의 근본사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박오수(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박사과정) 씨가 '서원과 미'를,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일본불교사독서회장)가 '출가, 재가, 그리고 비승비속'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첫 발제자로 나선 한명숙 교수는 정토교가 하열한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떤 중생에게 유의미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 교수는 "자력신앙이 가능하면 그것을 행하지만 타력신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며 "그러나 타력신앙에 의해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상황을 벗어났을 때는 그보다 상위의 길인 자력신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일본불교사독서회는 5월 26일 목우선원서 '한일 정토사상의 비교'를 주제로 제12회 학술세미나와 야나기 무네요시의 저서 〈나무아미타불〉 한국어판 발간 고불식을 개최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